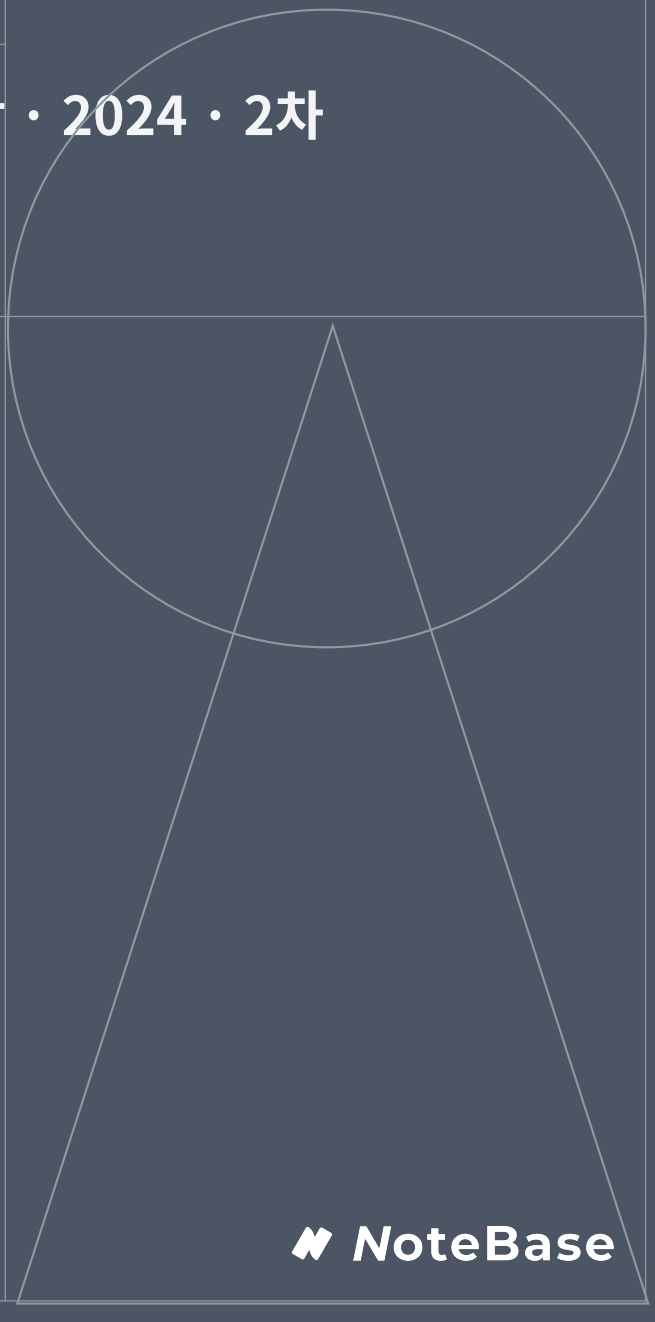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4 · 2차

문 1.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 관학이 아닌 것은?

① 성균관

② 사부학당

③ 향교

④ 서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한 관학과 민간이 세운 사학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한 공식 교육기관이다. 성균관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이고, 사부학당은 한성의 중등 교육기관이며, 향교는 지방의 관학이다.
사학은 민간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지방 유림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교육과 선현 제향 기능을 함께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관학으로 국가가 운영한 중앙 교육기관이므로 관학에 해당한다.
② O: 사부학당은 한성에 설치된 관립 중등 교육기관이므로 관학에 해당한다.
③ O: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관학 교육기관이므로 관학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서원을 관학으로 보는 판단이다. 서원은 지방 유림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이므로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다.

오답 포인트

향교와 서원은 모두 지방에 존재한 교육기관이라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향교는 국가가 세운 관학이고, 서원은 유림이 세운 사학이라는 설립 주체가 핵심 차이이다. 사부학당도 이름만 보고 사학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관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교육기관 문제는 먼저 설립 주체를 본다. 국가가 세우고 운영하면 관학이고, 지방 유림이나 민간이 세우면 사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관학은 성균관·사부학당·향교이고, 서원은 사학이다.

NoteBase

문 2.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능은 단일한 특성을 지닌다.

② 여러 지능들은 상호작용한다.

③ 언어 지능은 단어의 의미와 소리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다.

④ 논리-수학적 지능은 논리적·수리적 유형에 대한 민감성과 구분 능력 등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지능을 단일 능력으로 보지 않고 여러 비교적 독립적인 지능으로 본다는 점과 각 지능의 대표 특징을 묻는다.

핵심 정리

가드너: 지능은 하나의 일반지능이 아니라 여러 비교적 독립적인 능력의 집합이라고 본다.
언어 지능: 단어의 의미, 소리, 리듬,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다.
논리-수학적 지능: 논리적 관계, 수리적 유형, 추론과 분류 능력과 관련된다.
다중지능 이론: 각 지능은 독립성이 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지능은 단일한 특성을 지닌다라는 표현이다. 가드너는 지능을 하나의 단일 능력으로 보지 않고, 언어·논리수학·공간·음악 등 여러 비교적 독립적인 지능으로 본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지능은 여러 비교적 독립적인 특성과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② O: 다중지능 이론은 각 지능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이나 수행 상황에서는 여러 지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상호작용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③ O: 언어 지능은 말과 글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단어의 의미와 소리의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 핵심이다. 선지의 설명은 언어 지능의 대표 특징과 맞는다.
④ O: 논리-수학적 지능은 논리적 관계와 수리적 패턴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논리적·수리적 유형에 대한 민감성과 구분 능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전통적인 일반지능 관점을 가드너 이론에 섞어 넣은 선지이다. 다중지능이라는 명칭만 보고 여러 지능의 종류만 외우면 ①의 단일한 특성이라는 표현을 놓치기 쉽다. 또한 ②처럼 독립성과 상호작용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드너 문항은 먼저 단일 지능관인지 다중 지능관인지를 본다. 단일한 일반능력이라고 하면 오답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능의 상대적 독립성과 실제 수행에서의 상호작용을 함께 말하면 정답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각 지능의 대표 키워드가 언어, 논리-수학, 공간 등과 정확히 연결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가드너 = 단일지능 부정, 여러 지능 인정, 각 지능은 독립적이면서 수행에서는 함께 작동한다.

NoteBase

문 3. 교육행정이론에서 인간관계론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이다.

② 경제적 요인만이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다.

③ 고도의 전문화가 작업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④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비공식 조직의 사회적 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간관계론과 고전적 조직관의 속성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간관계론: 조직 구성원을 사회적 욕구와 정서, 집단관계를 지닌 존재로 보고 비공식 조직과 집단 규범의 영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인간을 경제적·기계적 존재로 보느냐, 사회적·심리적 존재로 보느냐 / 키워드: 비공식 조직, 사회적 욕구, 집단 규범
고전적 관점: 분업, 전문화, 공식 구조, 능률을 통해 조직 효율을 높이려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구조와 통제를 중시하느냐, 인간관계와 집단 역학을 중시하느냐 / 키워드: 전문화, 공식 조직, 능률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인간관계론은 개인을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와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따라서 개인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진술은 이 관점과 어긋나지 않는다.

② O
인간관계론은 임금 같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동기유발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소속감, 인정, 의사소통, 집단 내 인간관계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도 중요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고도의 전문화가 작업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이다. 이는 분업과 전문화, 능률을 중시하는 고전적 조직론의 발상이다. 올바르게는 "고도의 전문화는 고전적 조직론이 중시하는 효율화 원리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인간관계론은 지나친 전문화보다 비공식 조직, 협동, 집단 규범이 생산성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④ O
인간관계론은 생산 수준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비공식 조직의 사회적 규범과 집단 압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호손 실험의 핵심 함의와도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고도의 전문화"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표현이 구조 중심의 고전적 관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인간관계론은 능률 최적화 자체보다 집단 규범, 사기, 의사소통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전문화, 분업, 공식 구조, 능률 최적화가 나오면 고전적 관점을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비공식 조직, 사회적 욕구, 집단 규범, 사기 향상이 나오면 인간관계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전적 관점은 구조와 전문화,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과 집단 규범이다.

NoteBase

문 4. 의사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garbage ca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의 우연적 결합을 상정한다.

②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한다.

③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④ 의사결정의 전제로 인간의 전능성을 강조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사결정 모형의 핵심 특징을 구분하여 쓰레기통 모형을 다른 모형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쓰레기통 모형: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결합하는 모형이다.
점증모형: 기존 정책이나 결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모형이다.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최적해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높은 합리성을 전제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우연히 만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번 X: 틀린 표현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한다"이다. 이는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요소들의 우연한 결합을 설명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이다. 이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만족모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쓰레기통 모형은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우연성과 혼란성을 강조한다.
4번 X: 틀린 표현은 "의사결정의 전제로 인간의 전능성을 강조한다"이다. 이는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쓰레기통 모형은 인간의 전능성보다 조직의 혼란성과 비구조성을 전제로 한다.

오답 포인트

점증모형, 만족모형, 합리모형의 대표 문장을 쓰레기통 모형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특히 3번의 "현실적 한계"는 제한된 합리성을 떠올리게 하고, 2번의 "점진적 수정"은 점증모형의 전형적 표현이므로 모형별 대표 키워드를 분리해 두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사결정 모형 문제는 먼저 대표 키워드를 대응시키면 빠르게 정리된다. 우연한 결합이면 쓰레기통 모형, 기존 결정의 소폭 수정이면 점증모형,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이면 만족모형, 최적대안 탐색이면 합리모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한 결합, 점증모형은 점진적 수정, 만족모형은 만족해, 합리모형은 최적해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과정은?

◯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수학과 과학 분야는 새롭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직관적 사고를 중시하였다.
◯ 내적 동기를 강조하였다.
◯ 대표 학자로 브루너(J. Bruner)가 있다.

① 교과중심 교육과정
② 학문중심 교육과정
③ 경험중심 교육과정
④ 인간중심 교육과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교과중심·경험중심·인간중심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이미 정립된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교육과정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각 학문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탐구 과정을 익히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생활경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이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자아실현과 정의적 성장, 개인의 의미 형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 교과 지식의 체계적 전달에 무게를 둔다.
틀린 부분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판단이다.
제시문처럼 수학·과학의 학문 구조, 직관적 사고, 내적 동기, 브루너를 연결하면 올바르게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

② O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가 대표 학자로 거론되며, 학문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중시한다.
새 수학·새 과학 운동, 직관적 사고의 중시, 내적 동기의 강조는 모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X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아동의 흥미, 생활경험, 문제해결 활동을 중시한다.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특징을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브루너와 학문의 구조, 새 수학·새 과학 운동은 경험중심이 아니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④ X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자아실현, 감정, 인간관계, 전인적 성장을 강조한다.
틀린 부분은 브루너와 직관적 사고, 학문 구조 중심의 특징을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특징은 인간중심이 아니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내적 동기라는 표현만 보고 ④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내적 동기 하나만이 아니라 브루너, 직관적 사고, 새 수학·새 과학 운동을 함께 제시하므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브루너, 학문의 구조, 발견학습, 직관적 사고, 새 수학·새 과학이 보이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흥미와 경험이면 경험중심, 자아실현과 정의적 성장이면 인간중심, 전통 교과 지식의 체계적 전달이면 교과중심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브루너-학문의 구조-새 수학·새 과학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

NoteBase

문 6. 본질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② 교육의 목표는 문화적 가치 유산의 전수이다.

③ 교사 중심의 훈육을 강조한다.

④ 대표 학자로 허친스(R. Hutchins)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본질주의 교육사상의 핵심 특징과 대표 학자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본질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의 과도한 아동중심성과 생활중심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교육사상이다.
본질주의는 학교가 문화유산과 기초교과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수해야 한다고 본다.
본질주의는 교사 중심의 훈육과 권위를 중시하며 기본적인 학문 훈련을 강조한다.
허친스(R. Hutchins)는 본질주의가 아니라 항존주의의 대표 학자이며, 본질주의의 대표 학자로는 배글리(W. Bagley)가 거론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본질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이 기초지식과 교과의 체계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O: 본질주의는 교육의 목표를 사회와 문화가 축적한 핵심 가치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둔다.
③ O: 본질주의는 학생의 자율적 흥미보다 교사의 지도, 기본교과, 훈육, 학문적 훈련을 더 중시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대표 학자로 허친스(R. Hutchins)가 있다"는 연결이다. 허친스는 항존주의의 대표 학자이며, 본질주의의 대표 학자로는 배글리(W. Bagley)가 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는 모두 전통적 교육관으로 분류되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본질주의는 핵심 교과와 문화유산의 전수, 항존주의는 불변의 진리와 이성의 도야를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표 학자 연결이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적 교육사상 문제는 먼저 교육목표가 문화유산 전수인지, 불변의 진리 탐구인지 구분한 뒤 대표 학자를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문화유산 전수와 기초교과 강조는 본질주의, 허친스와 항존주의 연결은 별도로 구분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본질주의=배글리=문화유산·기초교과 전수, 항존주의=허친스=불변 진리 탐구이다.

NoteBase

문 7.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사상가는?

◯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는 신념을 가졌다.
◯ 학습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 서머힐 학교(Summerhill School)를 창립하여 아동 중심의 자유주의 교육을 실천하였다.

① 니일(A. S. Neill)
② 부버(M. Buber)
③ 몬테소리(M. Montessori)
④ 듀이(J. Dewe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머힐 학교, 아동의 선한 본성, 학습의 최대 자유라는 키워드를 보고 니일의 자유주의 교육사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니일: 서머힐 학교 - 아동의 본성은 선하며 강제보다 자유 속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부버: 만남의 교육 - 교육을 '나-너'의 인격적 관계와 대화로 본다.
몬테소리: 준비된 환경 - 교구와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교육이 일어난다고 본다.
듀이: 경험 중심 교육 - 학교를 민주적 사회생활의 장으로 보고 경험과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의 '아동의 본성은 선하다', '학습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자유', '서머힐 학교'가 모두 니일의 대표 특징과 일치한다. 니일은 아동 중심의 자유주의 교육을 실천한 인물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서머힐 학교'와 '학습의 최대 자유'를 부버와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부버는 '나-너' 관계, 만남, 대화를 통한 인격교육을 강조한 사상가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자유주의 교육과 서머힐 학교를 몬테소리와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몬테소리는 준비된 환경, 교구, 자기활동을 중시하며 자유도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이해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서머힐식 자유주의 교육을 듀이와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듀이는 경험의 재구성, 민주주의, 문제해결 중심 교육을 강조한 교육사상가이다.

오답 포인트

몬테소리도 자유를 말하고 듀이도 아동 중심을 말하므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서머힐 학교'는 니일을 바로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며, 부버는 관계와 대화, 몬테소리는 준비된 환경, 듀이는 경험과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먼저 고유명사와 대표 기관을 본다. 서머힐 학교가 나오면 니일을 우선 떠올리고, 이어서 자유주의 교육과 아동의 선한 본성이라는 보조 단서로 정답을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니일 = 서머힐 = 자유주의 교육 = 아동의 선한 본성이다.

NoteBase

문 8. 다음에 해당하는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
◯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 양심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사회적 질서 유지 지향(law and order orientation)
② 보편적 윤리 지향(universal ethical principles orientation)
③ 좋은 소년·소녀 지향(good boy-nice girl orientation)
④ 사회적 계약 지향(social contract orient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좋은 소년·소녀 지향은 타인의 인정과 기대에 맞추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단계이다.
사회적 질서 유지 지향은 법과 규칙, 의무를 지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단계이다.
사회적 계약 지향은 법과 제도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필요하면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단계이다.
보편적 윤리 지향은 스스로 선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이며, 극소수만 도달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적 질서 유지 지향은 법과 규칙, 의무를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4단계이다.
제시문은 법의 준수보다 스스로 선택한 보편적 원리와 양심의 결단을 강조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질서 유지 지향"이다. 올바르게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판단 기준일 때 해당한다.

② O
보편적 윤리 지향은 콜버그의 6단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이다.
제시문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과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 양심의 결단"은 모두 6단계의 핵심 특징이다.

③ X
좋은 소년·소녀 지향은 타인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3단계이다.
제시문은 대인관계의 기대 충족이 아니라 보편적 원리와 양심에 따른 자율적 판단을 말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좋은 소년·소녀 지향"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기대와 인정이 판단 기준일 때 해당한다.

④ X
사회적 계약 지향은 법을 공동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더 나은 복리를 위해 수정 가능하다고 보는 5단계이다.
제시문은 계약과 합의보다 보편적 윤리 원리와 양심의 최종 결단을 강조하므로 5단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계약 지향"이다. 올바르게는 법과 제도를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5단계와 6단계를 함께 후인습 수준으로 묶어 두고 구분하지 못하면 ④를 고르기 쉽다. 5단계는 사회적 합의와 공공복리,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와 양심이라는 기준 차이를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타인의 인정이 보이면 3단계, 법과 질서가 보이면 4단계, 사회적 합의와 권리 보장이 보이면 5단계, 스스로 선택한 보편 원리와 양심이 보이면 6단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콜버그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와 양심, 5단계는 사회적 계약과 공공복리이다.

NoteBase

문 9. 엘리스(A.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옳은 것은?

① 저항 분석(resistance analysis)
② 꿈 분석(dream analysis)
③ 자유 연상(free association)
④ 비합리적 신념 논박(disput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핵심 기법인 비합리적 신념 논박을 다른 상담기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엘리스의 REBT는 정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논박하고,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인지 중심의 상담 접근이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 갈등을 탐색하는 접근으로 자유 연상, 꿈 분석, 저항 분석이 대표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저항 분석은 내담자가 무의식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저항을 해석하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REBT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며, 올바르게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② X - 꿈 분석은 꿈의 잠재 내용을 해석하여 무의식을 이해하려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REBT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며, 올바르게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③ X - 자유 연상은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게 하여 무의식 내용을 탐색하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REBT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며, 올바르게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④ O - 비합리적 신념 논박은 REBT의 핵심 기법으로, 비합리적 사고를 따지고 반박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재구성하는 절차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 ①, ②, ③은 모두 상담이론에서 자주 묶여 나오는 익숙한 용어라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 기법은 모두 정신분석 계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엘리스의 REBT는 무의식 해석보다 비합리적 사고의 논박에 초점이 있다는 차이를 잡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엘리스가 보이면 ABCDE 모형과 disputing을 먼저 연결한다. 꿈 분석, 자유 연상, 저항 분석이 보이면 정신분석 기법으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엘리스 REBT = 비합리적 신념 논박, 프로이트 정신분석 = 꿈 분석·자유 연상·저항 분석이다.

NoteBase

문 10. 스턴버그(R. Sternberg)의 지능의 삼원론(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분석적 지능(analytic intelligence)
②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
③ 실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
④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턴버그의 지능 삼원론을 구성하는 세 요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스턴버그의 지능 삼원론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분석적 지능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고, 창의적 지능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며, 실제적 지능은 생활 장면에 맞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분석적 지능은 문제를 분석·비교·평가하는 능력으로, 스턴버그가 제시한 삼원론의 한 축에 해당한다.
2번 O: 창의적 지능은 새롭고 낯선 과제를 처리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므로 삼원론의 구성 요소가 맞다.
3번 O: 실제적 지능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적응·선택·형성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므로 삼원론의 구성 요소가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공간적 지능'이다. 공간적 지능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제시되는 지능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올바르게는 스턴버그의 삼원론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으로 구성된다.

오답 포인트

스턴버그의 삼원론과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함께 공부할 때 용어가 섞이기 쉽다. 공간적 지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스턴버그의 분류명이 아니라 가드너의 지능 영역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보이면 먼저 그 학자의 대표 분류 틀을 떠올린 뒤, 선지의 용어가 그 틀의 원래 범주명인지 확인하면 된다. 스턴버그는 분석적·창의적·실제적의 세 범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스턴버그 삼원론은 분석적·창의적·실제적이고, 공간적 지능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쪽 범주이다.

NoteBase

문 11.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아닌 것은?

①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②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③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④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 중점과 직업교육 맥락의 진술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2022 개정 총론이 초·중등학교 공통으로 강조하는 교육 방향이다. 키워드는 미래 대응, 공동체 의식, 기초소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학생 참여형 수업과 평가 개선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은 직업계열 일부 과목이나 실무 교육 편성에서 연결되는 기준이지, 초·중등학교 총론의 공통 구성 중점을 설명하는 말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하는 태도는 2022 개정 총론의 구성 중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구성의 중점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기르고, 교과 간 연계·통합,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총론의 구성 중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가 아니다.

③ O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는 진술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공통 구성 중점이 아니다. 이 표현은 직업교육이나 전공 실무 과목 편성의 맥락에 더 가깝다.
틀린 표현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와 '직무 능력'을 총론의 공통 구성 중점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총론에서 모든 학생의 기초소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학생 참여형 수업과 평가 개선 등을 강조한다.

④ X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방향은 총론의 구성 중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선지도 '아닌 것'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③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사회', '직무 능력'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어서 총론의 구성 중점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초·중등학교 총론의 공통 방향을 묻고 있으므로 직업계열 특수 맥락의 표현을 걸러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론의 구성 중점 문제에서는 먼저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향인지 확인한다. 미래 대응, 기초소양, 맞춤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참여형 수업과 평가처럼 보편적 표현이면 총론일 가능성이 높고, NCS·직무능력처럼 특정 직업교육 맥락의 표현이면 총론의 공통 중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2022 총론은 모든 학생의 공통 방향을 제시하고, NCS는 직업교육 맥락의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2.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 행동목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 '교육적 감식안'을 제안하였다.

① 타일러(R. Tyler)
② 아이즈너(E. Eisner)
③ 보빗(F. Bobbitt)
④ 애플(M. Appl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이즈너의 교육과정관을 대표 키워드인 행동목표 비판, 예술적 접근, 교육적 감식안과 연결하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타일러: 목표중심 교육과정 모형 - 교육목표를 명료화하고 그 목표에 맞는 학습경험을 조직·평가하는 합리적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한 학자이다.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관 - 행동목표의 한계를 비판하고 교육적 감식안과 교육비평을 통해 질적 판단과 예술적 접근을 강조한 학자이다.
보빗: 사회적 효율성 교육과정 - 성인 생활의 과업을 분석하여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선정하려 한 초기 교육과정학자이다.
애플: 비판적 교육과정론 - 교육과정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문화 재생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학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된 설명은 타일러가 아니라 아이즈너에 해당한다. 타일러는 행동목표의 한계를 비판한 학자가 아니라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 대표 학자이다.
② O - 아이즈너는 행동목표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지적했고, 교육과정을 예술적으로 이해하며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적 감식안'을 제안한 학자도 아이즈너이다.
③ X - 보빗은 사회적 효율성과 과학적 교육과정 구성에 가깝다. 제시된 설명과 연결되는 인물은 보빗이 아니라 아이즈너이다.
④ X - 애플은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성과 문화 재생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학자이다. 예술적 접근, 행동목표 비판, 교육적 감식안은 애플이 아니라 아이즈너의 키워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타일러와 아이즈너를 모두 교육과정 이론가로만 묶어 두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행동목표'라는 말이 나오면 타일러를 떠올리게 만드는 데 있는데, 여기서는 행동목표를 제시한 인물이 아니라 그 한계를 비판한 인물을 묻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형 문항은 이름 전체를 외우기보다 대표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행동목표 비판, 예술적 접근, 교육적 감식안이 함께 나오면 아이즈너를 먼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아이즈너 = 예술적 접근 = 교육적 감식안 = 행동목표 비판이다.

NoteBase

문 13.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 (가) 이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으로, 검사 도구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특성을 의미한다.
◯ (가) 타당도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에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가 이를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검증 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예언(predictive)
② 내용(content)
③ 구인(construct)
④ 공인(concurren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구인과 구인타당도의 정의를 알고, 예언타당도·내용타당도·공인타당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인은 이론에 근거해 설정한 추상적·가설적 심리 특성이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측정 내용 영역을 고르게 대표하는가를 보는 타당도이다.
예언타당도는 현재의 검사 점수가 미래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보는 타당도이다.
공인타당도는 현재의 검사 결과가 동시에 측정한 외적 준거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타당도이다.
구인타당도는 검사가 의도한 추상적 심리 특성인 구인을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검증하는 타당도이며, 요인분석이 대표적 검증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예언타당도는 미래 준거 예측이 핵심이므로, 제시문의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 '요인분석으로 검증'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예언이다. 올바르게는 미래 성취나 수행을 예측하는 타당도이다.
2번 X: 내용타당도는 문항 내용이 교육목표나 내용 영역을 얼마나 충실히 대표하는가를 본다. 틀린 표현은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검사 문항의 내용 대표성을 판단하는 타당도이다.
3번 O: 구인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추상적 심리 특성이며, 구인타당도는 그 구인을 검사가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증하는 타당도이다. 요인분석이 구인타당도 검증 방법이라는 설명도 일치한다.
4번 X: 공인타당도는 현재의 외적 준거와의 상관을 보는 준거타당도의 한 형태이다. 틀린 표현은 공인이다. 올바르게는 현재 시점의 준거와의 일치 정도를 보는 타당도이다.

오답 포인트

타당도 용어들이 모두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다루므로 헷갈리기 쉽다. 특히 '타당도'라는 공통어만 보고 1번이나 4번을 고르면 안 되고, 제시문에 나온 '추상적·가설적 개념', '요인분석'이라는 단서가 구인과 구인타당도를 직접 가리킨다는 점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추상적 심리 특성, 이론적 구성개념, 요인분석이 나오면 구인과 구인타당도를 먼저 떠올린다. 미래 예측이면 예언타당도, 내용 영역 대표성이면 내용타당도, 현재 준거와의 일치이면 공인타당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인은 추상적 구성개념이고, 구인타당도는 그 구성개념을 제대로 재는가의 문제이다.

NoteBase

문 14. ADDIE 모형의 '분석(analysis)'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구 분석

② 학습자 분석

③ 직무 및 과제 분석

④ 프로그램 효과 분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ADDIE 모형의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직무·과제 분석과 평가 단계의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석 단계는 교수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누구에게 가르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키워드는 요구, 학습자, 과제이다.
평가 단계는 설계·개발·실행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키워드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효과 검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요구 분석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확인하여 교육 필요를 도출하는 활동이므로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② O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선수지식, 동기, 특성, 수준을 파악하는 활동이므로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③ O
직무 및 과제 분석은 수행해야 할 직무 내용과 하위 과제를 분해하여 학습내용을 정하는 활동이므로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프로그램 효과 분석"이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는 일은 분석 단계가 아니라 평가 단계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평가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분석 단계의 "분석"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종류의 분석을 한데 묶으면 ④에 걸리기 쉽다. ADDIE에서 분석 단계는 설계 이전의 요구·학습자·과제 파악이고, 프로그램 효과 분석은 실행 이후의 평가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내용이 설계 전에 대상을 파악하는 일인지, 프로그램 운영 후 성과를 검토하는 일인지를 먼저 나누면 된다. 전자는 분석 단계이고 후자는 평가 단계이다.

암기 포인트

ADDIE의 A는 요구·학습자·과제, E는 효과 평가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회학 이론은?

◯ 학생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 노동계급의 학생은 자신들을 사나이(lad)라 부르며 노동문화에서의 가치관을 학교문화에 접목함으로써 반학교문화를 형성한다.

① 볼스와 진티스(S. Bowles & H. Gintis)의 경제 재생산론
② 윌리스(P. Willis)의 저항이론
③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 재생산론
④ 번스타인(B. Bernstein)의 문화 전달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사회학의 재생산론들과 윌리스의 저항이론을 구별하고, 특히 반학교문화와 사나이(lad)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볼스와 진티스: 경제 재생산론 -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와 위계질서를 재생산하며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순응적 노동력을 길러 낸다고 본다.
윌리스: 저항이론 - 노동계급 학생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교문화에 저항하며, 사나이(lad) 집단의 반학교문화를 통해 노동계급 문화를 재생산한다.
부르디외: 문화 재생산론 -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자본과 아비투스를 정당한 문화로 만들고, 상징적 폭력을 통해 계급 재생산을 강화한다고 본다.
번스타인: 문화 전달론 - 계급에 따라 제한된 어법과 세련된 어법의 차이가 나타나며, 학교는 중산층의 언어 코드를 더 유리하게 평가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제시문은 학생을 능동적 주체로 보고 학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강조하며, 특히 사나이(lad)와 반학교문화라는 윌리스의 전형적 표현이 나온다.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 재생산론은 학교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한다는 구조적 설명이 중심이다. 틀린 표현은 "볼스와 진티스의 경제 재생산론"이다. 올바르게는 "윌리스의 저항이론"이다.
2번 O: 노동계급 학생이 자신들을 사나이(lad)라 부르고 노동문화의 가치관을 학교 안으로 들여와 반학교문화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윌리스의 저항이론을 직접 가리킨다. 학생을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점도 저항이론의 핵심과 일치한다.
3번 X: 부르디외의 문화 재생산론은 문화자본, 아비투스, 상징적 폭력을 통해 학교가 지배계급 문화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설명이 핵심이다. 반학교문화와 사나이(lad)는 부르디외가 아니라 윌리스의 개념이다. 틀린 표현은 "부르디외의 문화 재생산론"이다. 올바르게는 "윌리스의 저항이론"이다.
4번 X: 번스타인의 문화 전달론은 언어 코드, 즉 제한된 어법과 세련된 어법의 차이와 그것이 학교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노동계급 학생의 반학교문화 형성은 번스타인의 논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번스타인의 문화 전달론"이다. 올바르게는 "윌리스의 저항이론"이다.

오답 포인트

재생산론이라는 큰 범주만 기억하면 1번이나 3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사나이(lad)", "반학교문화", "학생의 능동적 저항"이며, 이 세 가지는 윌리스 저항이론의 고유 표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 속 고유 키워드를 찾고, 그다음 인물과 연결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 재생산이면 볼스와 진티스, 문화자본과 상징적 폭력이면 부르디외, 언어 코드면 번스타인, 사나이(lad)와 반학교문화면 윌리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윌리스 = 사나이(lad) = 반학교문화 = 능동적 저항이다.

NoteBase

문 16. 교육평등관과 그 예시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②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제거

③ 교육조건의 평등 - 교사의 질 및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간 격차 해소

④ 교육결과의 평등 -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환경 제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과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성별, 종교, 인종, 신분 등으로 교육기회 자체를 차별하지 않는 단계이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장애를 제거하여 실제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학교 시설, 교사 수준, 교육과정처럼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단계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학업성취나 발달 결과의 격차를 줄여 학생들이 비슷한 교육성과에 이르도록 하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허용적 평등은 교육받을 자격을 열어 두는 소극적 평등으로, 성별·종교·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입학 차별 철폐가 대표적이다.
2번: O. 보장적 평등은 형식적 개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취학을 막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을 없애 실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한다.
3번: O. 교육조건의 평등은 학교 간 교사의 질, 시설, 교육과정 차이를 줄여 비슷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
4번: X. 틀린 표현은 '교육결과의 평등 -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환경 제공'이다. 동일한 교육환경 제공은 교육조건의 평등에 해당한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학생들의 성취 결과나 발달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교육조건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을 모두 '평등을 더 강화한 단계'로만 외우면 4번처럼 환경과 결과를 뒤바꾸기 쉽다. 이 문항은 무엇을 같게 하려는지의 대상이 환경인지 결과인지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명사가 기회, 취학장애, 학교환경, 성취결과 중 무엇인지 먼저 본다. 차별 철폐이면 허용적 평등, 장애 제거이면 보장적 평등, 학교 여건이면 교육조건의 평등, 성취 격차이면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허용은 차별 금지, 보장은 장애 제거, 조건은 학교환경, 결과는 성취 격차이다.

NoteBase

문 17.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평생교육사 채용,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관 설치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평생교육 거점이다.

핵심 구분

이 문항의 핵심은 수립 주기와 의무·재량 표현을 구분하는 데 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반면 제8조의 학습휴가·학습비 지원과 제26조의 평생교육사 채용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1조의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선지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틀린 표현: "매년"
올바른 표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O: 옳은 선지이다. 「평생교육법」 제26조는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도 맞고, 표현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인 '채용할 수 있다'가 맞다.

③ O: 옳은 선지이다. 「평생교육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 방식과 대상이 법문과 일치한다.

④ O: 옳은 선지이다. 「평생교육법」 제21조는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체와 의무 표현이 모두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①의 "매년" 같은 주기 바꾸기와 ②·③의 '할 수 있다', ④의 '하여야 한다'를 서로 뒤섞는 것이다. 이 문항은 조문의 세부 문구를 묻는 문제이므로 숫자 표현과 의무·재량 표현 하나만 바뀌어도 정오가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문구형 문제에서는 먼저 주체가 누구인지, 다음으로 수립 주기·기간·횟수 같은 숫자 표현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재량인지 의무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평생학습관은 설치·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채용과 학습비 지원은 할 수 있다.

NoteBase

문 18. 매클래건(P. McLagan)의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에 제시된 인적 자원개발(HRD)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 개발(training & development)
② 생산 개발(production development)
③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④ 조직 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클래건의 인적자원 수레바퀴 모형에서 HRD의 영역이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로 구성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매클래건은 HRD를 개인 개발(training & development),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조직 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로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학습과 역량 향상, 개인의 경력 성장, 조직의 변화와 효과성 향상을 다루는 세 영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 개발은 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인의 지식, 기능, 태도를 높이는 HRD 영역이므로 모형에 포함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생산 개발'이다. 매클래건의 HRD 영역에는 생산 개발이라는 범주가 없고, 올바르게는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이 제시된다.

③ O
경력 개발은 개인의 장기적 경력 성장과 경력 경로를 지원하는 HRD 영역이므로 모형에 포함된다.

④ O
조직 개발은 조직의 구조, 문화, 과정의 개선을 통해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HRD 영역이므로 모형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training &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생산성 향상과 연결해 '생산 개발' 같은 낯익은 말로 바꾸면 틀리기 쉽다. 이 모형은 생산 기능이 아니라 개인, 경력, 조직이라는 HRD의 세 범주를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 이름이 보이면 그 학자의 대표 분류 틀을 먼저 떠올린다. 매클래건은 HRD 3영역이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클래건 HRD는 개인-경력-조직의 3영역이며 생산 개발은 없다.

NoteBase

문 19. 「교육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한다.

④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의무교육, 평생교육의 기본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의무교육은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이 받을 권리를 가지는 기본 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학습 활동을 뜻한다.

핵심 구분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평생교육 장려를 규정한다. 다만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 아니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보는 진술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교육기본법」의 교육기회균등 조항에 해당한다.

②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선지의 진술은 조문 취지와 일치한다.

③ X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 아니다.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한다.
틀린 표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올바른 표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④ O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교육기본법」의 평생교육 조항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③의 의무교육 범위이다. 교육 관련 기본 원칙 조항들은 대체로 익숙해서 맞게 보이지만,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의 12년으로 확대해서 기억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기본법 문제에서는 먼저 차별 금지, 자주성 보장, 의무교육 기간, 평생교육 장려처럼 숫자와 범위가 분명한 조문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의무교육은 몇 년인지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암기 포인트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은 12년이 아니라 초등 6년 + 중등 3년이다.

NoteBase

문 20. 학교회계 등 교육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회계를 둔다.

② 초·중·고 학교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③ 학교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④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구분, 학교회계의 세입 범위,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교육비특별회계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는 회계이다.
학교회계 = 각 국립·공립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회계이다.

핵심 구분

시·도 차원의 교육재정을 따로 경리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이고, 각 학교별 운영경비를 처리하는 것은 학교회계이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다.
학교회계 세입에는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이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시·도의 교육·학예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두는 것은 학교회계가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이다.
틀린 표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회계를 둔다"
올바른 표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또는 "학교회계는 각 학교별로 설치한다"

2번 X: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이 아니라 3월 1일 시작이다.
틀린 표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올바른 표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3번 O: 학교회계 세입 항목을 정확히 열거한 선지이다.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이 학교회계 세입이 된다.

4번 X: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틀린 표현: "학부모가 부담한다"
올바른 표현: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항목에 한정된다"

오답 포인트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같은 층위의 회계로 섞어 외우면 1번에 걸린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를 일반 행정회계처럼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하면 2번에 걸린다. 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문구를 의무교육 전반의 경비로 확대하면 4번 함정에 빠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계 단위를 구분하면 된다. 시·도 전체 교육재정이면 교육비특별회계이고, 개별 학교 운영이면 학교회계이다. 그다음 학교회계는 세입 항목과 회계연도 3월 1일 시작이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시·도는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는 학교회계, 학교회계 연도는 3월 시작, 학부모 부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비만 해당한다.

NoteBase

문 21.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②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동료교사의 다면평가 결과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④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의 평정 요소와 평정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력평정이라는 연공 요소와 근무성적평정·교육성적평정이라는 실적 요소, 그리고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나누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경력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서 재직경력 등을 점수화하는 연공 요소이다.
다면평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동료교사 평가이다.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을 합산한 성적이다.

핵심 구분

교육공무원 승진은 경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 등 실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다.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도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을 나누어 평정한 뒤 합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력평정은 연공 요소이고 근무성적평정과 교육성적평정은 실적 요소이므로, 현행 승진제도는 연공과 실적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② O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학년도 말 기준이라는 진술은 옳다.

③ X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는 매 학기 종료일이 아니라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한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성적의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틀린 표현: "매 학기 종료일"
올바른 표현: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며,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성적의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④ O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규정과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평정 시기를 학기말로 바꾸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다면평가의 존재가 아니라 "매 학기"와 "매 학년도"의 기준 시점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승진제도 문항은 먼저 연공 요소인지 실적 요소인지 나누고, 다음으로 평정 기준 시점이 학기인지 학년도인지 확인하면 된다. 교사 근무성적평정 관련 진술에서 "다면평가"가 보여도 기준 시점은 매 학년도 종료일인지부터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경력평정은 연공, 근무·교육성적은 실적, 교사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이다.

NoteBase

문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④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교육·학예 관장사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관장사무는 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맡아 처리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무를 뜻한다.

핵심 구분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열거된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이다.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은 포함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은 해당 조항의 열거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둔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사무에 해당한다.
2번: O. 제20조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명시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교육 진흥은 포함된다.
3번: O. 제20조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둔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교육·학예진흥은 교육감 사무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이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제20조에 열거된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인데,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은 그 열거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교육감이 교육 전반을 모두 관장한다고 넓게 받아들이면 4번도 맞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이 문항은 교육 일반이 아니라 제20조의 열거사항을 정확히 대조하는지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문항에서 관장사무를 묻는 경우에는 먼저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각 선지를 조문에 실제로 열거된 문구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육감 관장사무는 제20조 열거사항으로 잡고, 학교 설치·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은 포함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진흥은 바로 넣지 않는다.

NoteBase

문 23. 학급경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직원 인사

② 교과지도

③ 특별활동

④ 생활지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급경영의 주요 영역과 학교경영의 인사행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급경영은 한 학급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과지도는 수업과 학습지도의 영역이고, 특별활동은 학급 단위의 자치·행사·체험 활동 운영과 연결되며, 생활지도는 학생의 생활습관·인성·적응을 돕는 영역이다. 반면 교직원 인사는 교사와 직원의 임용·배치·승진 등을 다루는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의 영역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교직원 인사는 학급 담임의 학급운영 범위를 넘어서는 학교경영·교육행정의 영역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학급경영의 영역으로 보는 전제이다. 올바르게는 교직원 인사는 학교경영 또는 교육행정의 인사관리 영역이다.
② O: 교과지도는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로서 학급경영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
③ O: 특별활동은 학급회의, 자치활동, 행사 참여 등 학급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활동과 연결되므로 학급경영의 영역에 해당한다.
④ O: 생활지도는 학생의 생활습관, 교우관계, 규범 형성, 학교적응을 돕는 활동이므로 학급경영의 중요한 영역이다.

오답 포인트

학급경영과 학교경영을 같은 수준의 개념으로 섞어 보면 ①을 고르지 못하기 쉽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활동인지, 교직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인지가 구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이 학생의 학습, 생활, 학급활동이면 학급경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상이 교직원 배치, 인사, 조직 운영이면 학교경영이나 교육행정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학급경영은 학생 중심, 교직원 인사는 학교경영이다.

NoteBase

문 24.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획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②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③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④ 법령상 출석일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현행 졸업 요건을 학점 취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와 학점·졸업 기준의 변화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공통과목 비중 확대가 아니라 선택과목 확대, 과목 선택권 강화, 이수 기준에 따른 학점 취득에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공통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제도'라는 표현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선택과목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학생의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하되, 공통과목 비중 확대보다 선택과목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강화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2번 O: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이수 기준에 도달한 경우 학점을 취득하고, 그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옳다. 단순 수강이 아니라 이수 기준 도달이 학점 취득의 전제가 된다.
3번 O: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을 기존의 '단위' 체제에서 '학점' 체제로 전환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수업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4번 O: 고교학점제는 출석일수 충족 중심의 졸업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이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졸업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고교학점제가 기초학력 보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통과목 비중 확대라고 연결하면 틀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기초 소양 보장'과 '공통과목 확대'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교학점제 선지가 나오면 먼저 '학생 선택권 확대', '이수 기준 충족 후 학점 취득', '학점 누적으로 졸업'이라는 세 축이 들어 있는지를 본다. 반대로 공통과목 확대나 단순 출석 중심 설명이면 오답 가능성이 크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교학점제는 공통 확대가 아니라 선택 확대, 출석 중심이 아니라 학점 누적 중심의 제도이다.

NoteBase

문 25. 철수의 수학 시험 성적은 60점이었다. 정규분포를 보이는 철수의 학교 전체 학생 50명의 수학 점수 평균은 50, 표준편차는 10이었다. 철수의 수학 점수는 학교에서 8등이었고 동점자는 없었다. 철수의 학교 내 규준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테나인 점수는 7이다.

② 백분위는 68이다.

③ Z점수는 1이다.

④ T점수는 6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점수로부터 z점수, T점수, 백분위, 스테나인을 연결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철수의 원점수 60점, 평균 50점, 표준편차 10, 전체 학생 수 50명, 석차 8등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상대점수의 타당성이다.
정규분포이므로 z점수로 백분위와 스테나인을 판단할 수 있고, 석차 정보로도 백분위가 68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z = \frac{X - M}{SD}$, $T = 50 + 10z$를 사용한다.
백분위는 $z = 1$에 대응하는 누적비율로 약 84%이다.
스테나인은 백분위를 9등급으로 나눈 값이므로 백분위 약 84는 스테나인 7에 해당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졌고, 다른 상대점수들이 모두 표준점수 변환값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z = \frac{60 - 50}{10} = 1$이므로 Z점수는 1이다.
2. $T = 50 + 10 \times 1 = 60$이므로 T점수는 60이다.
3. $z = 1$의 누적백분위는 약 84.1%이므로 백분위는 약 84이다.
4. 백분위 약 84는 스테나인 구간 7에 해당한다.
5. 석차가 8등이면 철수보다 낮은 학생은 42명이므로, 석차 기준으로 보아도 백분위는 약 84 또는 85 수준이지 68이 아니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O: 스테나인 점수는 7이 맞다. $z = 1$은 백분위 약 84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적인 스테나인 구간에서 7에 들어간다.
2번 X: 백분위가 68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z = 1$의 백분위는 약 84이다. 68은 평균을 중심으로 ± 1표준편차 안에 전체의 약 68%가 들어간다는 성질을 잘못 가져온 값이다. 틀린 표현은 "백분위는 68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백분위는 약 84이다"이다.
3번 O: Z점수는 1이 맞다. 평균보다 10점 높고 표준편차가 10이므로 평균에서 정확히 1표준편차 위에 있다.
4번 O: T점수는 60이 맞다. $T = 50 + 10z$에 $z = 1$을 대입하면 60이 된다.

오답 포인트

백분위 68과 정규분포의 68% 법칙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2번을 고르게 된다. 68% 법칙은 평균을 중심으로 한 구간의 비율이고, 백분위는 특정 개인보다 아래에 있는 누적비율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대점수 문제는 먼저 z점수를 구한 뒤 T점수, 백분위, 등급 점수 순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정규분포의 구간 비율과 개인의 누적백분위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면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z = 1$이면 백분위는 약 84, T점수는 60, 스테나인은 7로 연결된다.

NoteBase